

보 도 해 명 자 료 (19. 4. 4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무보-은행간 업무협약은 상업적 판단에 기초한
자발적 협약입니다. (4.4일자 조선비즈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무보-은행간 업무협약은 상업적 판단에 기초한 자발적 협약입니다
- ◇ 4월 4일 조선비즈 < 정부 수출활력 제고 MOU '보여주기' 행사 논란 > 제하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최근 산업부가 시중은행을 불러 개최한 '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식'은 은행에 대한 압박수단이라는 해석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금번 업무협약은 무역보험공사와 4대 시중은행간 상업적 판단에 기초한 자발적 협약입니다.
-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은 무보의 '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상품'에 대해 19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.
- 산업부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개시 및 1호 보증발급을 축하하기 위해 동 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.

※ 문의 : 수출입과 조익노 과장 / 이영주 사무관(044-203-4043)